

조사위 출범 막은 한국당, 5·18 진상규명이 두렵나?

결국 해 넘기는 5·18진상조사위 출범

자유한국당의 똘이로 5·18 진상조사위 출범이 결국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9월14일 발효된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조사위원 추천을 외면, 진상조사위 출범을 가로막고 있어 군사 정권의 후예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진상조사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이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조사위원 추천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때부터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할뿐 실질적인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지만원씨가 진상조사위원으로 거론되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9일부터 14일까지 추진할 조사위원을 공개 모집했는데, 정작 공모를 한 뒤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공모 결과, 조사위원 후보를 13명에서 5명으로 압축했으며 3명의 조사위원 후보를 내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진상조사위원 추천은 안개속이다. 나 원내대표가 일단 공모를 통해 압축된 후보군을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말까지 위원 추천은 사실상 어려운 상

조사위원 추천 100여일 무개

한때 지만원씨 위원 거론도

공모 한다더니 감감 무소식

"군사정권 후에"비난 여론

황이다.

정양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가 바뀐데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각종 법안 등을 놓고 여권과 정면 충돌하면서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문제를 다루기 어려웠다"며 "일단 이번 임시국회를 마무리 짓는 대로 진상조사위원 추천 문제를 다음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사제지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 수석부대표는 '연내 추천을 마무리 짓느냐'는 질문에 "아직 논의를 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조사위원 추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조사위원 추천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 위원 추천이 원점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내에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 추천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이며 내년 초에나 위원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한국당이 내년 1월이나 위원 추천을 한다고 해도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등을 고려하면 2월이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밥상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중학생 농부인 한태웅 군(15)이 기요 '흙에 살리다'를 열창하자 박수치고 있다. 한 군은 이날 직접 수확한 쌀 5kg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진상조사위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은 물론 시민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 경위와 사격 명령자, 시민 피해자 현황 등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힘 센 소도 경운기 대신 못해"

농업인·농업 단체장 간담회 스마트 농업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농업정책과 관련해 "세계는 이미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례적 수급 불균형으로 농축산물 물가 상승의 변동 폭이 커지면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며 "스마트 농업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 계획 단계부터 농민과 소통하고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농업은 우리 생명이며 안보"라며 "농민의 땅이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을 키웠고 농민이 벼를 돌보듯 정성스레 키운 자식들이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다. 6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해서 세계 6위의 금자탑을 쌓고 마침내 국민소득 3만불 수준에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무척 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가 소득은 2017년 연 소득 3824만원으로 2010년 이후 7년 동안 612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논과 밭이 황폐해지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또 "농촌 경제의 근간인 쌀값이 80kg 한 가마 당 올해 19만33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26.2% 인상됐다. 농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쉽고 부족할 것"이라며 "도시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생각하며 꾸준히 쌀값이 올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 개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농민들과 농업의 공립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 농촌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기에 농민의 의견을 달성해서 세계 6위의 금자탑을 쌓고 마침내 국민소득 3만불 수준에 오기까지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검 감찰본부 김태우 수사관 증징계 요청... '靑특감반 논란' 2R

"개인 비위 의혹 대부분 사실"

한국당 비서실장 등 고발

2건의 수사 과정에서 진실 규명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 과정에서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찰 결과, 김 수사관의 비위가 증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27일 해임 처분을 대검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대검은 ▲민간업무로부터 골프·향응 접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

개입 시도 등 청와대의 징계 요청 사유를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6월 정보를 주고받던 건설업자에게 특감반 파견을 위해 인사청탁을 하고, '셀프 승진'을 위해 감찰대상인 과기정통부에 "감찰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사물관 자리 신설을 유도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감찰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진실 규명은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각각 낸 두건의 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맡겨졌다. 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특감반의 업무영역 바깥에 있는 민간인들을 사찰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관상 부하 직원에게 내린 정당한 지시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김 수사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청와대는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두 고발사건 중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라인 수사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4일 사건을 배당받고 나서 이를 만에 청와대 압수 수색에 나섰다. 반면 지난 21일 김 수사관 고발장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1부는 아직 수사 활동이 걸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검찰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관심은 청와대 수사에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민간 영역에 대한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첩보활동을 지시한 적이 없고, 보고가 올라와도 폐기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결국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건우 New Square

- ▶ 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가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임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 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